

마가복음의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에 대한 고찰

— παιδίων의 의미와 마가복음 10:15의 문장구조 이해를 중심으로 —

김서준*

1. 서론

마가복음 9:33-37과 10:13-16에 나오는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설교 본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예수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모습은 예수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처럼 남아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예수는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제자들은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대표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천국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어린이들의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¹⁾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본문의 맥락,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와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 본문의 등장인물의 말, 행위에 대한 의미 분석, 등, 본문에 대한 주석적 연구를 통해서 정당한 것으로

*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계명대학교 신약학 교수. aromaletter@live.co.kr. 이 논문은 이 땅에서 παιδίων으로 살아가는 서*순씨께 바칩니다.

1) 뮐러(P. Müller)는 어린아이 이야기 해석에 대한 그의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sschrift)에서 독일교회에서도 위에서 필자가 요약한 내용들이 주로 가르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Kinder im Neu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2), 33 이하.

입증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 본문을 대략 살펴보다도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된다: 1) 우리가 들어온 일반적인 어린아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과연 이 이야기가 위치한 마가복음의 서사적 맥락에 어울리는가? 2) 예수가 아이를 안거나 축복한 행위는 마가복음 9:35, 9:37, 10:14-15의 예수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지금까지의 해석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했는가? 3)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아이들은 세상의 평범한 아이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인가? 4) 어린아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들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마가복음의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보려고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가 자리한 위치와 역할을 마가복음의 큰 두 번째 단락의 서사적 구조 안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9:33-37과 10:13-16의 상관관계를 어휘와 모티브, 주제 면에서 살펴보고, 이 두 이야기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의 교훈과 어린아이를 통한 행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예수의 교훈과 행위의 의미를 *παιδίων*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정리하고,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도 교훈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논란이 되는 마가복음 10:15의 문장구조 해석 문제를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과 관련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의 맥락과 상호연관성

마가복음 8:22-10:52는 포괄병행구조(*inclusio*)를 형성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경 치유 기사, 마가복음 8:22-26과 마가복음 10:47-52에 둘러싸여 있다. 이 긴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은 길 위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9:17, 38; 10:17, 20, 35).²⁾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와 제자들의 여정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세 번의

2) 마가복음의 큰 둘째 단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길 위에서”라는 표현은 예수의 제자도와 관련된 “구조화된 모티브(*strukturierendes Motiv*)”이다. D. Lüthmann, *Das Markusevangelium*, HNT (Tübingen: Mohrsiebeck, 1987), 141.

예고이다(8:31; 9:30; 10:33). 이 세 번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항상 무지와 몰이해로 점철되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의 큰 들쭉 단락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소경이 눈을 뜨는 모습(8:22-26; 10:46-52)과 대조를 이룬다.³⁾

마가복음 9:33-37의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는 예수의 두 번째 고난과 죽음 예고 다음에 등장한다. 제자들은 예수가 두 번째로 장차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며, 거기에 대해서 묻기도 무서워한다(9:32).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벌인, 길 위에서의 다툼 보도를 통해서 더 고조된다(9:34).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는 이러한 제자들의 길 위에서의 다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예수는 큰 자로서 행세하길 원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πάντων διάκονος)로서의 제자도를 말씀하신다.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축귀하는 자에 대한 보도와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9:38-41), 작은 자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화평에 대한 교훈(9:42-50), 그리고, 이혼을 주제로 한 바리새인의 시험(10:1-12)에 대한 보도 다음에 이어진다. 이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는 제자들과 상반된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의 환대와 축복에 대해서 말한다.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와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는 이렇게 중간에 여러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선 두 이야기는 모두 공간적으로 “집”(οικία)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각각 어린아이를 향한 예수의 상징적인 행위와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본문이 담고 있는 주된 메시지 역시 서로 긴밀히 연관되는데, 이 점은 두 본문의 공통된 표현과 모티브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⁵⁾ 두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⁶⁾

3)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내부자들임에도 예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영적 소경과 같다.

4) 마가복음에서 “집”은 예수의 활동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데, 특히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한다(7:17; 9:28; 9:33; 10:10). 자세한 것은 J. Schreiber, “Die Christologie des Markusevangeliums: Beobachtungen zur Theologie und Komposition des Zweiten Evangeliums”, *ZThK* 58.2 (1961), 162-164 참조.

5) P. Spitaler, “Biblical Concern for the Marginalized: Mark’s Stories About Welcoming the Little Ones (Mk 9,33-11,11)”, *ETHL* 87.1 (2011), 90 이하; M. Ebner, “Kinderevangelium oder markinische Sozialkritik? Mk 10,13-16 im Kontext”, *Gottes Kinder*, JBT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2), 318; B. Bosenius, *Der Literarische Raum des Markusevangeliums*, WMA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4), 335 이하 참조.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의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서로 나뉘진 막 9:35와 10:15의 예수 말씀이 마 18:3-4에서 한 이야기에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6) 아래 표의 번역은 필자의 사역에 따른 것임.

마가복음 9:33-37		마가복음 10:13-16	
	장면:		장면:
33절	그들은 가버나움에 왔다. 집에 계실 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으로 논쟁을 하였느냐?”	13절	사람들이 예수에게 어린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데리고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
34절	제자들은 침묵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큰지 서로 논쟁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
35절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만일 누군가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1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게 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상징적 행위:		두 번째 가르침:
36절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 가운데 세우고, 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에게 하듯이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가르침:		상징적 행위
37절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중에 하나를 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16절	그리고, 그는 어린이들을 안고 손을 그들 위에 얹어 축복하셨다.

7) 아래에서 자세하게 논하겠지만 막 10:15의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ὡς παιδίων*의 *παιδίων*을 목적격으로 읽고, 이 문장의 주된 강조점이 어린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막 10:15의 문장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는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9: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스스로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여긴다. 하지만 제자들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 자리, 종의 자리가 아닌 첫 번째 자리, 곧 섬김을 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자신들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막아선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두 본문의 공통적인 주제는 *δέχομαι* 동사의 사용에서 잘 드러난다.⁸⁾ 마가복음 9:37에서 *δέχομαι* 동사는 네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며, 모두 세 주체에 대한 받아들임을 이야기한다: 어린아이, 예수, 예수를 보낸 자(하나님). 여기서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의 중요성은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예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일시됨으로 강조된다.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제가 제자들과 예수 사이의 상반된 모습 속에서 부각된다.⁹⁾ 마가복음 10:15는 이러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어린아이가 예수,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점과 유사하다.¹⁰⁾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어린아이에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동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새로운 변화된 태도를 요구한다.

3.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막 9:33-37)의 주된 주제

3.1. 마가복음 9:35의 예수 말씀의 의미와 예수의 상징 행위

마가복음 9:35의 ‘첫째(*πρῶτος*)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ἔσχατος*)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διάκονος*)가 되어야 한다(막 9:35)’는 예

구조에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막 10:13-16의 전체 맥락에도 더 잘 어울린다. 그리고 막 9:37과 10:15의 주제가 *δέχομαι* 동사를 중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παιδίον*을 목적적으로 읽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라.

8) P. Spitaler, “Biblical Concern for the Marginalized: Mark’s Stories About Welcoming the Little Ones (Mk 9,33-11,11)”, 97 이하;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W. Stegemann, W. Schottroff, hrsg., *Traditionen der Befreiung. Sozialgeschichtliche Bibelauslegungen. Band 1. Methodische Zugänge* (München: Kaiser, 1980), 128 이하 참조.

9)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라.

10) 필자가 주장하듯이 *ὡς παιδίον*의 *παιδίον*을 목적적으로 읽을 때 이런 점이 명확해진다.

수의 가르침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길 위에서의 논쟁과 관련된 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여러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예수 말씀의 의미와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병행구절들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본문은 마가복음 9:35에 나오는 *πρῶτος-ἔσχατος, διάκονος* 사이의 대조와 유사한 대조들이 나타나는 본문들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18:4(*μέγας-ταπεινώ*); 20:26-27(*μέγας-διάκονος, πρῶτος-δοῦλος*); 23:11-12(*μέγας-διάκονος, ὑψώω-ταπεινώ*); 마가복음 10:43-44(*μέγας-διάκονος, πρῶτος-δοῦλος*); 누가복음 9:48c(*μέγας-μικρός*); 14:11(*ὑψώω-ταπεινώ*); 18:14(*ὑψώω-ταπεινώ*); 22:26(*μέγας-νέος, ἡγέομαι-διακονέω, μέγας-διακονέω*); 요한복음 13:12-17(*κύριος-δοῦλος*).

우선 마태복음 18:3-4는 마가복음의 첫 어린아이 이야기의 병행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본문과 유사한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을 전해주지만 마가복음 9:35의 주제와 10:15의 주제가 서로 혼합된 형태를 보여 준다.¹¹⁾ 이 외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10:43-44에 상응하는 제자도 교훈을 그대로 20:26-27에 수용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3:11-12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을 고발하는 맥락에서 다시 한 번 유사한 교훈이 등장한다. 누가복음 9:48은 마가복음 9:35를 반영하지만 마가복음 9:37의 말씀과 연결되어 매우 간단한 형태를 보인다: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μικρότερος*)가 곧 큰 자(*μέγας*)이다.’ 마가복음 10:43-44에 해당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 22:26-27에 나타난다. 하지만 맥락은 마가복음과 차이가 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 후가 아니라 마지막 만찬 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논쟁과 관련하여 섬김의 제자도를 말씀하신다. 요한복음의 경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선생(*διδάσκαλος*)이며 주님(*κύριος*)이시지만 스스로 종(*δοῦλος*)이 된 예수의 모습이 부각된다(13:14-15).¹²⁾

11) 일반적으로 마 18:3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18:4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표현은 어린아이의 마음의 겸손, 겸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표현은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가진 실제적인 지위와 연관 지어 이해해야 한다. 마태복음 역시 제자들의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의가 예수의 어린아이를 통한 가르침의 동기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어린아이는 낮은 지위에서 섬기는 자의 표본으로 등장한다. 마태복음의 어린아이 이야기 역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작은 자”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된다는 점도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이 단지 영적인 겸손, 겸양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마 18:6 이하 참조).

12) 요 13:12-17의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 예수가 자신을 발을 씻기는 종으로 말씀

이처럼 마가복음의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에 나오는 첫 예수의 가르침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한 예수의 대답,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 마지막 만찬에서의 논쟁, 세족식 등, 복음서의 다양한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도의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가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의 일반적인 제자도 교훈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마가복음의 내적인 서사적 구조 안에서도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섬김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를 거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를 보도하는 마가복음의 큰 두 번째 단락(막 8:22-10:52)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막 10:35-45)에서 제자들의 길 위에서 다툼과 유사한 제자들의 문제를 다시 보게 된다. 예수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큰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δοῦλος)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역할 역시 섬기는 자(διάκονος)로 규정하신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주제화된 섬김의 제자도는 이처럼 마가복음의 큰 두 번째 단락의 길 위에서 제자들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주된 주제이다.

마가복음 9:35의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의 한 어린아이를 향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가시화된다. 예수가 한 아이를 안아 준 행위(ἐναγκαλισάμενος)¹³⁾는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가르침의 방식이다.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예수의 상징적인 행위는 마가복음 9:35의 가르침을 더 선명히 부각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37의 선행적인 모델 역할도 한다. 이렇게 마가복음 9:37과 연결 지어 볼 때 예수가 아이를 안아 준 행위는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환대와 받아들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⁴⁾ 예수의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과의 연관성 외에도 본문의 한 어린아이가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가지는 의미이다. 마가복음 본문 속의 한 어린아이는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그는 예수가 말씀하신 세상의 끝, 마지막에 처한 자를 대표하는 존재이다.¹⁵⁾ 이러한 관찰은 마

하시는 장면은 막 10:45/마 20:28이나 눅 22:27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신학 안에서 예수의 발 씻음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는데, 막 10:45/마 20:28 역시 예수의 섬김의 소명을 그의 대속의 죽음과 관련 지어 이야기한다.

13) 동사 ἐναγκαλιζομαι는 공관복음 병행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막 9:36과 10:16에만 사용된다.

14) P. Spitaler, "Welcoming a Child as a Metaphor for Welcoming God's Kingdom: A Close Reading of Mark 10.13-16", *JSNT* 31.4 (2009), 431 이하 참조.

15)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30 이하; P. Müller, *In der Mitte der*

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2. παιδίον의 의미¹⁶⁾

마가복음 9:36-37의 παιδίον은 흔히 “어린아이”로 번역되며, 일반적인 아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불특정한 평범한 아이로 이해된다. 이런 배경에서 주석가들은 흔히 마가복음 본문의 메시지를 고대 사회에서 어른들이 가졌던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인식과 연관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고대 사회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인 측면만 다룬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이 열악하고, 강압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물론 고대 문헌 자료들 안에서 아이들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와 아이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억압과 인권유린에 대한 내용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¹⁷⁾ 하지만 동시에 고대 문헌 자료들은 오늘날과 별 다를 바 없는 아이들의 친진난만한 모습과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 자녀 교육을 위한 열정을 보여 주기도 한다.¹⁸⁾

이러한 접근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마가복음 본문의 παιδίον이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가버나움의 집에 있었던 한 특정한 아이를 가리킨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37절의 ἐν τῶν τοιούτων παιδίον이라는 표현을 볼 때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들어간 집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예수가 중간에 세우신 어린아이, 그리고, 품에 안으신 아이는 그들 중의 한 명이였다. 그리고 예수의 παιδίον을 통한 상징적인 행위가 예수의 제자도 교훈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 역시 기존의 해석에서 진지하게 고려

Gemeinde, 209 이하.

- 16) παιδίον은 신약성경에 모두 53회 등장한다. 그 중에 43회가 공관복음에 나오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합쳐서 3번, 바울서신에 1번, 그리고, 히브리서에 3번이 등장한다. 이처럼 παιδίον에 대한 이야기는 유독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복음서에서 많이 나타난다.
- 17) 예를 들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버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건강하고 힘이 있는 아이들은 양육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지만 여자나 병약한 아이는 버려지기도 했다. 또한 일반적인 아이들의 교육은 자유자에게 해당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자세한 것은 H. R. Weber, 『예수님과 어린아이』, 양금희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22 이하;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107 이하 참조.
- 18) 특히 편지, 예술작품, 비문 가운데 고대 사회의 어른들 역시 자신의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자료는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17 이하;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117 이하 참조. 아이들을 향한 일반적인 부모의 사랑은 신약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막 5:35-43; 7:24-30; 9:14-29와 병행본문들; 눅 11:5-8, 9-13).

되지 않는다. 예수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신 *παιδίον*은 모든 사람들의 끝, 마지막에 처한 자,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존재이다(눅 9:48, *μικρότερος*).¹⁹⁾

이런 점에서 *παιδίον*을 비롯한 *παῖς*, *παιδός*, *παιδάριον*, *παιδίσκη*와 같은 단어들에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고, 미성숙한 대상을 지칭하며, 특히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종(노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²⁰⁾ *παιδίον*은 *παῖς*의 지소사(Diminutivform)로 일반적으로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까지 아직 육체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을 가리키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 사용된다. 이 단어는 다른 *παῖς*나 *παιδ-*어군의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작고, 미성숙한 아이들을 지칭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연령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²¹⁾ *παιδίον*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παῖς*나 *παιδ-*어군의 단어들과 달리 고대 문헌에서 종을 의미하기도 한다(Aristoph., Ra 37; Nu 132).²²⁾ 그리고 더 나아가서 *παιδίον*은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기도 하며(고전 14:20),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히 2:13 이하), 예수의 제자들, 신도들(요 21:5; 요일 2:18; 3:7)을 가리킬 수도 있다. *παιδίον*의 이러한 다양한 용례들, 곧,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이 단어가 “어린아이”라는 고착된 의미에 결코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παιδίον*의 의미 영역과 마가복음 본문의 맥락을 고려하면 마가복음 9:36-37의 *παιδίον* 역시 종으로 살아가던 아이를 가리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³⁾ *παιδίον*을 종으로 보면 예수가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19) 여기에 대해서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204; R. T. France, 『마가복음』, 이종만, 이요한, 정모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604; M. E. Boring, *Mark: A Commenta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281; N. F. Santos, *Family Relations in the Gospel of Mark* (New York: Peter Lang, 2021), 130 참조.

20) *παῖς*: Aeschyl., Cho. 652; Plut., Alcib. 193; JosAs 99,3; Jos., Ant. 18,192; 칠십인역에서 매우 자주; 마 8:6, 8, 13; 12:18; 14:2; 눅 1:54, 69; 7:7; 12:45; 15:26 등. *παιδάριον*: Xenoph., Ag. 1,21; Diog. L., Vit. 6,52, 삼상 25:5; 룻 2:5, 9 등. *παιδίσκη*: TestJob 21:2; Jos., Ant. 18,40; 칠십인역에서 매우 자주; 마 26:69; 막 14:66, 69; 눅 22:56; 행 12:13; 16:16, 19; 요 18:17 등. *παιδίσκη*는 특히 고대사회에서 성적 노예로 살아가는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ThWNT, LSJ, BDAG, παῖς, παιδάριον, παιδίσκη* 항목 참조.

21) *παιδίον*의 의미 영역을 복음서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분석한 뮐러는 *νήπιος, μικρός*와의 연관성에 특별히 주목한다.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201 이하 참조.

22) 자세한 것은 *ThWNT, LSJ, παιδίον* 항목 참조.

23)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23 이하; J. Marcus, 『마가복음 II』, 장성민 역 (서울: CLC, 2016), 1127 이하, 1138 이하 참조.

세우고, 안아 준 행위는 마가복음 9:35의 마지막에 처한 자(ἔσχατος)로서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πάντων διάκονος)가 되어야 한다는 제자도 교훈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διάκονος가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종종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을 지칭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린아이 이야기 본문의 παιδίον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실제로 식탁에서 시중을 들던 어린 종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⁴⁾ 이처럼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세우신 아이가 식탁에서 시중을 들던 아이라면 예수의 가르침과 어린아이를 통한 상징 행위의 의미는 더 분명히 이해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10:44의 “모든 사람의 종”(πάντων δοῦλος)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의 교훈과 마가복음 10:45에서 예수가 자신을 “섬기는 자”(διάκονος)로 정의하는 것 역시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παιδίον과 διάκονος, δοῦλος와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παιδίον과 위에서 언급한 마가복음 9:35의 병행본문들에 나타나는 ἔσχατος, μικρός, νέος, ταπεινώ와 같은 단어들의 상관관계 역시 어린아이 이야기의 παιδίον이 어린 종을 가리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단순히 연령이나 체격과 같은 사람의 외적 조건을 가리키는 말들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 속에서 실제로 낮은 지위에 처한 작은 자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관찰과 더불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버리거나 파는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도 마가복음의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는 자신에게서 난 아이들에 대한 전권(patria potestas)을 가지고, 그들을 버릴 수도,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Dionysios, Ant Rom II 26,4).²⁵⁾ 이러한 권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었고, 이집트를 비롯해서 로마의 속주에 속한 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팔리는 이유는 다양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을 기를 능력이 없거나 아이들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질 때, 버리고, 팔았지만(Seneca, De ira I 15,2; Cicero, Leg III 8,19; Plutarch, Lycurg 16), 때로는 부모의 삶의 향유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도 했다(Polybios, Hist XXXVI 17; Sueton, Aug 65). 그리고 팔린 아이들은 그 집의 노예로, 유흥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거지나 창녀가 되기도 했다.²⁶⁾ 예수의

24) J. Marcus, 『마가복음 II』, 1127 이하; B. Bosenius, *Der Literarische Raum des Markusdevangeliums*, 336;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209 이하.

25) J. Marquardt, *Das Privatleben der Römer I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5), 2 이하 참조.

26)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20 이하; H. R. Weber, 『예수님과 어린 아이』, 22 이하.

제자 공동체가 유대인들의 모임이며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로마의 관행이 영향을 미쳤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²⁷⁾, 당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 헬라시대부터 이방의 문화와 관습에 깊이 융화된 점과 그 외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가 겪은 오랜 전쟁과 경제적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다수의 아이들이 팔렸던 고아가 되었던 간에 종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²⁸⁾

3.3. 어린아이에 대한 환대와 받아들임

마가복음 9:37의 예수의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네 번이나 반복되는 *δέχομαι* 동사에 있다. 모든 사람의 끝, 마지막을 대변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단순한 명령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는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써 어린아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명령의 무게를 증폭시킨다.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를 보낸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예수가 자신을 어린아이와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가복음 10:42-45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여기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종의 삶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그런 종임을 천명하신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 9:37에 나타난 어린아이와 예수의 자기 동일화는 단순히 과장된 수사나 영적, 신학적 유비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

27) 타키투스(Tacitus)는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버리는 관례를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행위에 대해서 칭송한다(Hist 5).

28) 슈테게만(W. Stegemann)은 탈무드의 기록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의 유대 사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팔거나 저당 잡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자세한 것은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23 이하 참조. 헬라, 로마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R. Kessl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Eine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8), 175 이하 참조.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막 9:37)을 유대교 가르침(Meg 13a)과 연관 지어 고아를 입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J. Marcus, 『마가복음 II』, 1128 이하; J. M. Gundry, "Children in the Gospel of Mark, with Special Attention to Jesus' Blessing of the Children (Mark 10:13-16) and the Purpose of Mark", M. J. Bunge, eds., *The Child in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2008), 154 이하 참조.

29) 필자가 역으로 재구성한 내용은 실제로 눅 10:16에 나타난다: *καὶ ὁ ἀθετῶν ὑμᾶς ἐμὲ ἀθετεῖ ὁ δὲ ἐμὲ ἀθετῶν ἀθετεῖ τὸν ἀποστειλαντά με.*

재이다. 누가복음 22:27이 보도하는 마지막 만찬 때의 제자도 교훈 가운데,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말씀 가운데도 예수는 자신이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종으로서의 낮아짐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데서 정점에 이른다(막 10:45).

마가복음 9:37의 예수의 교훈은 마태복음의 최후의 심판 비유와 제자과송 설교에 나타나는 작은 자에 대한 환대와 받아들임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기도 한다.³⁰⁾ 마태복음의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심판자 예수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동일시하는 말씀이다(마 25:40). 의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ἐνὶ τούτων τῶν ἀδελφῶν μου τῶν ἐλαχίστων)에게 한 여러 선한 행위들은 곧, 예수에게 한 행위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마가복음 어린이이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받아들임(δέχομαι)이라는 주제도 등장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영접한 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마가복음 9:37의 메시지와 결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환대와 받아들임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예수의 제자과송 단락 역시 마가복음 9:37의 예수의 교훈을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마태복음 10:40-42는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환대와 받아들임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10:40의 말씀은 마가복음 9:37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방랑 설교자들인 제자들이 환대와 받아들임의 대상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마태복음 10:42의 말씀을 참고하면 방랑 설교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작은 자 한 사람(ἓνα τῶν μικρῶν τούτων)을 향한 환대이며, 섬김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역시 곤고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작은 자들인 것이다.³¹⁾

마가복음 9:37의 예수의 가르침과 마가복음 9:36의 예수의 상징적인 행위는 공관복음의 여러 전승들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자를 향한 환대와 받아들임을 강조하는 교훈과 관련하여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는 작고, 비천한 처지의 사람들을 향한 환대와 받아들임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마태복음에서 예수와 동일시된 그 작은 자들

30)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 H. R. Weber, 『예수님과 어린이』, 92 이하; J. Marcus, 『마가복음 II』, 1140 이하 참조.

31) 마가복음 역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환대와 섬김을 어린이이 이야기에 이어서 말하고 있다(막 9:41). 이와 같이 예수의 환대와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린이이와 같은 작은 자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받아들임을 이야기한다. 요 13:20 역시 이런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발 씻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말씀하신 예수는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환대와 받아들임을 강조한다.

은 주리고, 목마른 자, 입을 것이 없는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처럼 방랑 설교자로 곤고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이었다. 마가복음에서 그 작은 자들은 종으로 살아가던 어린아이들이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낮은 처지의 아이들이지만 예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품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가복음의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제

4.1. 본문의 핵심 주제와 선행 질문들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행위와 예수의 행위는 ‘받아들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명확히 대조적으로 묘사된다. 제자들은 예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9:33-37의 내용을 기억하며 읽는 독자라면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 것이다.³²⁾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아이들을 향한 태도의 격차는 마가복음 10:14와 10:15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을 거쳐서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가 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³³⁾

본문의 핵심 주제와 더불어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선 명확히 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2) 본문에서 언급되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3) 제자들은 왜 이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막아섰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주석가들 사이에서 대부분 세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설령 다룬다고 하더라도 본문의 주제를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과 사랑, 혹은,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두고 이러한 질문들을 다룬다. 이런 접근 방식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여러 가지 억측들

32) 여기에 대해서 J. Marcus, 『마가복음 II』, 1206 참조. 제자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ἐπιτιμάω는 예수의 첫 번째 고난, 죽음 예고 이후 베드로가 한 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33) 제자들과 예수의 행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자들 - 사람들을 꾸짖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방해함, 예수 - 아이들을 안음, 손을 얹어 축복함. 예수의 마지막 행위를 통해서 결국 아이들을 만져 주기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의 목적의 성취된다.

로 인해서 본문의 핵심 주제를 이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예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본문에서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복수형 동사 *προσέφερον*로부터 이들이 다수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어의 생략으로 누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제자들의 가족들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³⁴⁾ 제자들이 자신들의 아내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을 못 오게 막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장면을 비롯한 가족과 관련된 예수의 말씀을 참고할 때 제자들이 아내와 다른 혈연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예수의 공생애 사역에 함께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⁵⁾ 다음으로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다.³⁶⁾ 이것 역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의 입장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관복음서의 *παῖς*나 *παιδίον*의 용례들을 볼 때 마가복음 본문의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³⁷⁾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 아이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일 것이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παιδίον*이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가버나움의 집의 특정한 한 아이임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παιδίον*이 종으로 살아가던 아이일 수 있으며, 또 고아를 가리킬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 속의 아이들 역시 도입부 장면에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특정한 아이들이다.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와 두 번째 어린아이의 연관성, 마가복음 10:14-15의 하나님의 나라 선언 말씀, 그리고 예수의 아이들을 향한 행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번째 어린

34) 예를 들어 보제니우스(B. Bosenius)는 제자들의 아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주장한다. B. Bosenius, *Der Literarische Raum des Markusevangeliums*, 330 이하.

35) 보제니우스는 막 10:29-30에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에서 아내들이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헤어지기 이전에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예수의 축복을 받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다수의 사본이 “아내”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병행구절 역시 “아내”를 함께 언급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막 10:29-30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일정하지 않은 점은 본문에 나오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을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36) J. Gnl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II*, EK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5), 80; J. Marcus, 『마가복음 II』, 1204; R. T. France, 『마가복음』, 638 참조.

37) 뮐러는 *παῖς*, *παιδίον*의 의미 영역을 조사하면서 이 단어들이 부모가 있는 특정한 아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미성숙한 자, 종 등, 부모가 언급되지 않는 다수의 경우들에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276 이하.

아이 이야기의 아이들 역시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던 비천한 처지의 아이들이 확실히 있다. 여기에 더해서 흔히 ‘만지다’라고 번역되는 ἅπτω의 사용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복음서에서 ἅπτω는 자주 치유 행위와 연관되는데(마 8:3, 15; 9:29; 17:7; 20:34; 막 1:41; 7:33; 8:22; 눅 5:13; 22:51)³⁸⁾, 이러한 관찰은 어른들이 단지 아이들을 만져 달라고 예수에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길 바라고 예수에게 데리고 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도되는 예수의 행위,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한 것(κατευλόγει τιθεὶς τὰς χεῖρας ἐπ’ αὐτὰ) 역시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치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막 1:31; 1:41; 5:23; 5:41과 병행본문; 막 8:22; 눅 4:40; 7:14 참조).³⁹⁾ 본문에 사용된 ἅπτω, τίθημι τὰς χεῖρας와 같은 표현들을 주목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⁴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서도 더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선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이 예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⁴¹⁾ 이런 입장은 아이들을 어른들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성가신 존재로 이해한다.⁴²⁾ 하지만 이런 해석은 마가복음 본문의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마가복음 본문이 말하는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의 핵심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⁴³⁾ 예수의 분노를 일으킨 제자들의 행위는 오히려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특정한 사회적 처지를 고려

38) BDAG, ἅπτω 항목 참조.

39) U. Heckel, “Die Kindersegnung Jesu und das Segnen von Kindern: Neutestamentliche und Praktisch-theologische Überlegungen zu Mk 10,13-16 Par.,” *ThB* 32.6 (2001), 328 이하 참조.

40) 공관복음에서 자주 아이들의 치유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막 5:21-43/마 9:18-26/눅 8:40-56; 막 7:24-30/마 15:21-28; 막 9:14-29/마 17:14-21/눅 9:37-43; 마 8:5-13/눅 7:1-10). 눅 7:1-10에서 παῖς와 함께 δοῦλος가 등장하는 점도 마가복음의 본문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277 이하.

41) 예를 들어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472; K. J. Timpte, *The Transformational Role of Discipleship in Mark 10:13-16: Passage Towards Childhood*, LNTS (London: International Clark, 2022), 88; J. D. M. Derrett, “Why Jesus Blessed the Children (Mk 10:13-16 Par.)”, *NovT* 25.1 (1983), 11 참조.

42) 현대의 수많은 교회가 제자들의 모습을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우려해 따로 방을 만들어 부모와 함께 있게 하거나 선생님을 붙여서 함께 지내게 한다. 막 10:13 해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43) J. Marcus, 『마가복음 II』, 1206 참조.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술한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보통 가정의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던 비천한 처지의 아이들로, 특히 어른들이 불쌍히 여겨 예수의 치유를 바라고 데려 온 아픈 아이들로 이해할 수 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런 아이들이 자신의 그룹으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길 위에서의 다툼과, 후에 보도되는 세베대의 아들의 요구에서 보듯이 제자들의 문제는 세상의 마지막에 처한 존재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4.2.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선언의 의미

마가복음 10:14에서 예수는 아이들을 막아 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말씀하신다: τῶν γὰρ τοιούτω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이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막아섰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τῶν τοιούτων이라는 표현이다. 이 지시어는 분명히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13에서 명시된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게 데리고 온 특정한 아이들을 지칭한다.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결코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아이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다.⁴⁴⁾

대부분의 주석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마가복음 본문의 어린아이들을 일반적인 아이들로 해석하고, 예수의 선언 역시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⁴⁵⁾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들로 다음과 같은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순수함, 욕심 없음, 나약함,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함.⁴⁶⁾ 이러

44) 막 9:37의 ἐν τῶν τοιούτων παιδίων과 마찬가지로 막 10:14의 τῶν γὰρ τοιούτων은 예수의 말씀이 특정한 그룹을 향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 지시어 τοιούτων은 τούτων과는 다르게 본문 속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류의 아이들을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τοιούτων이 본문의 맥락을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성품을 가진 어른들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45) 마가복음 본문에서 무명의 어른들이 예수께 데리고 온 아이들이 세상의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과 자질을 모두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46)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가 언급한 바 있다(Paedagogus 1.5). 아이의 나약함과 의지에 대해서는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이 강조한 바 있다(Cofessiones 21), 근래에는 아이들이 순전히 어른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와 연결 짓는 해석들이 많다. J. Marcus, 『마가복음 II』, 1207 이하; A. Y. Collins, *Mark*, 473; W.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9), 360; P. Dschulnigg, *Das Markusevangelium*, ThKNT (Stuttgart: W. Kohlhammer, 2007), 272; J. M. Gundry, "Children in the Gospel of Mark, with Special Attention to Jesus"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는 마가복음 10:14에 대한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마가복음 10:15의 해석에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메시지가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면들을 닮아야 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어린아이들의 특징들이 정말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이다. 십분 양보하여 아이들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라는 내용은 복음서가 증거 하는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분명 낮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0:14와 10:15의 해석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묘사들은 주석가들이 제안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일 뿐이며, 마가복음 본문의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⁴⁷⁾

그렇다면 마가복음 10:14의 아이들을 향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다른 공관복음이 전해주는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선언의 예들을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⁴⁸⁾ 우선 누가복음 6:20의 제자들을 향한 선포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이 본문에는 마가복음 본문과 같은 형식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가 나타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Μακάριοι οἱ πτωχοί, ὅτι ὑμετέρα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이 복 선포는 예수를 따라나선 제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전한다. 마태복음 21:31에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등장한다. 마태복음 본문은 위선과 교만에 빠져 있던 종교지도자들을 고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말씀은 이처럼 가난과 핍박, 멸시와 정죄 등, 현실 세계의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를 약속한다.⁴⁹⁾ 위에서 제안한 대로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온 아이들을 일반적인

Blessing of the Children (Mark 10:13-16) and the Purpose of Mark”, 151 이하 참조.

47) 여기에 대해서 C. E. B. Cranfield,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323 이하; P. Spitaler, “Welcoming a Child as a Metaphor for Welcoming God’s Kingdom: A Close Reading of Mark 10.13-16”, 433 이하 참조.

48) 막 10:14와 눅 6:20, 마 21:31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26 이하 참조.

49)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26 이하 참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던 아이들, 고아들, 혹은, 아픈 아이들로 이해한다면 마가복음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 선언 역시 다른 공관복음 본문들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선언의 근거는 결코 일반적인, 그것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온 아이들이 처한 비천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4.3. 마가복음 10:15의 문장구조 이해⁵⁰⁾

예수의 두 번째 가르침은 ἀμήν으로 시작한다. 이 표현은 말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 뒤에는 주로 어떤 명제가 따른다.⁵¹⁾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그 명제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한 것이다: ἀμήν λέγω ὑμῖν, ὃς ἂν μὴ δέξηται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ὡς παιδίον, οὐ μὴ εἰσέλθῃ εἰς αὐτήν. 이 본문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전통적인 이해는 ὡς 뒤의 παιδίον을 주격으로 읽는다. 그러면 전체 문장은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⁵²⁾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예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

50) 막 10:15는 편집비평과 양식비평을 선호한 과거의 연구에서 종종 마가의 부차적 삽입으로 간주되었다. J. Gnilka, *Markus II*, 80; G. Klein, “Jesus und die Kinder. Bibelarbeit über Markus 10,13-16”, G. Klein, hrsg., *Ärgernisse, Konfrontation mit dem Neuen Testament* (München: Kaier, 1970), 67 이하. 마가복음의 이야기 구조를 살펴볼 때 13절과 16절은 이야기 전체의 구조적 틀을 형성하고 그 안의 두 개의 예수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막 10:13-16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간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여기에 대해서 W. Schmithals, *Das Evangelium nach Markus* (Gütersloh: Mohn, 1979), 443 참조.

51) ἀμήν 다음에는 영적 보상과 징벌에 대한 약속과 경고가 자주 따라 나온다(막 3:28; 9:1, 41; 10:29).

52) 우리말 성경 번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보제니우스는 παιδίον을 주격으로 읽는 방식에 대해, ὡς παιδίον을 바로 ὃς에 연결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δέξηται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이 생략된 문장 형식(Ellipse)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 B. Bosenius, *Der Literarische Raum des Markusdevangeliums*, 333 이하. 필자가 볼 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의 이상형으로 보고, 그들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삼았다. 즉, 첫 번째 어린이 이야기에서 강조된 모든 사람의 끝, 마지막에 처한 존재인 어린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위의 전통적인 이해가 옳다면 왜 갑자기 예수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주제로 말씀하시는지 설명하기 어렵다.⁵³⁾ 그리고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이 생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0:14의 하나님의 나라 선언과 연결 지어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특징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주장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⁵⁴⁾ 복음서 어디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상응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어린이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도 이러한 교훈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읽기 방식보다는 마가복음 10:15의 *παιδίων*을 목적격으로 읽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읽기는 문법 규칙에도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παιδίων*의 위치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석이기도 하다.⁵⁵⁾ 만약 기존의 읽기 방식을 고수한다면, *παιδίων*이 왜 하필 문장의 마지막에, 그것도 *ὡς* 뒤에 위치했는지 설명해야 하며, *ὡς παιδίων*을 앞의 주동사 *δέξεται*와 목적어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παιδίων*을 목적격으로 이해할 때 마가복음 10:15의 *ὁς ἄν*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아마도 다음의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⁵⁶⁾ ‘누구든지 어린이를 받아들이듯

53)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34 이하; P. Spitaler, “Welcoming a Child as a Metaphor for Welcoming God’s Kingdom: A Close Reading of Mark 10.13-16”, 433 이하. 스피탈러(P. Spitaler)는 더 나아가 마가복음 본문에서 어린이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54) 교회 지도자들이 어린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말에 대한 순종을 종용한다면 이것은 아주 나쁜 경우가 될 것이다.

55) 슈테게만은 막 10:15의 *παιδίων*을 목적격으로 읽을 것을 제안하면서 *ὡς*와 함께 목적어가 이어지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용례라고 언급한다. 그는 예로 막 12:31의 *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όν*을 든다. *σεαυτόν*이 따로 떨어져서 하나의 주어 구실을 하지 않는 것처럼 *παιδίων*을 문장의 주어로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W. Stegemann,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133 이하.

56) 현재의 우리말 성경의 번역들은 사실 *παιδίων*을 주격으로도 볼 수 있고, 목적격으로도 볼 수 있는 모호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παιδίων*을 문장의 주어로 보고 번역했음이 확실하다. 『공동』은 원문에 없는 어린이의 특징까지 더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나는 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부정사 *μή*를 *ὡς παιδίον*에까지 연결시켜 ‘누구든지 어린이를 받아들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에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번역을 취하든 *παιδίον*을 목적격으로 이해하는 것의 강조점은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되는 데에 있다.⁵⁷⁾

이렇게 *παιδίον*을 목적격으로 보는 해석은 무엇보다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환대와 받아들임의 주제는 마가복음 10:15의 *δέχομαι*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가복음 10:16에 묘사된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주제이다. 예수가 낮고 비천한 처지의 어린이들을 안아 준 행위는 그런 아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인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한 자들이라는 마가복음 10:14의 선언을 가시화해서 보여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⁵⁸⁾ 반대로 제자들이 아이들을 거부한 행위는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단지 어린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이들을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예수께 데리고 온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⁵⁹⁾ 마가복음 10:15의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본받으라는 것에 있지 않다. 그 핵심은 세상의 보잘 것 없고 비천한 자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

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 57) 보제니우스는 *ὡς παιδίον*을 단지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의 수식어로 보는 방식과 앞의 문장의 동사 *δέξεται*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읽든지 문장의 중심 주제는 *παιδίον*을 주격으로 읽는 것과는 다르게 어린이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게 된다. 막 10:15의 다양한 읽기 방식에 대해서는 P. Spitaler, “Welcoming a Child as a Metaphor for Welcoming God’s Kingdom: A Close Reading of Mark 10.13-16”, 426 이하; P. Müller, *In der Mitte der Gemeinde*, 48 이하도 참조.
- 58)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예수의 선언과 예수가 어린이를 안은 행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사이의 병행구조이다. 이런 병행구조는 예수가 제자들을 향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막 9:37),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막 10:14-15).
- 59) P. Spitaler, “Welcoming a Child as a Metaphor for Welcoming God’s Kingdom: A Close Reading of Mark 10.13-16”, 440 참조.

치는 데에 있는 것이다.⁶⁰⁾

마가복음 10:15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기를 거부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상과 동일시하는 어법은 마가복음 9:37에서 사람들의 끝, 마지막에 처한 자인 어린아이가 예수,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점과 유사하다.⁶¹⁾ 세상에서 끝, 마지막에 처한 비천한 자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에 대한 환대와 받아들임을 강조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단순히 그러한 자를 생각하고 돌봐야 한다는 단순한 윤리적 담론이 아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 자신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처럼 가장 작고 낮은 존재인 아이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실현할 것을 요구받는다.

5. 결론

마가복음 9:33-37의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와 10:13-16의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를 특별히 마가복음의 큰 두 번째 단락(막 8:22-10:52)의 길 위에서의 제자도 교훈과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와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의 주된 메시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존재인 종으로서의 섬김과 동시에 그런 자를 환대하고 받아들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수는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닮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가 자리한 본문의 맥락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두 본문이 담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과 상징 행위의 의미에도 맞지 않는다.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본 연구는 특별히 παιδίων의 의미

60) 그닐카(J. Gnllka)는 예수가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모습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주석한다. J. Gnllka, *Das Evangelium nach Markus II*, 81.

61) 막 9:37과 10:15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의미 관계에 대해서 P. Spitaler, "Biblical Concern for the Marginalized: Mark's Stories About Welcoming the Little Ones (Mk 9,33-11,11)", 99 참조.

분석을 통해서 예수가 제자들 앞에 세우고 안아주신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종(노예)으로 살아가던 아이를 가리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런 해석은 παιδίων의 성경을 비롯한 고대 문헌의 용례에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문의 예수의 가르침과 어린아이에 대한 상징적 행위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게 해준다. 예수는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에 처한 존재인 어린 종을 세우시고,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막 9:35). 뿐만 아니라 그런 비천한 존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향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요구하셨다(막 9:37). 이러한 제자도 교훈의 의미는 마가복음 내적으로는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를 거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의 대답에서 더욱더 분명해진다(막 10:42-45). 또한 작은 자로서의 섬김과 작은 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병행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도의 핵심 내용이며, 마가복음의 첫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는 이러한 메시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두 번째 어린아이 이야기에서 본 논문은 이 이야기가 환대와 받아들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예수의 행위와 제자들의 행위를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 10:14와 10:15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의 의미를 이러한 이야기 구조 안에서 살펴보았다. 마가복음 10:14의 예수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선언은 다른 공관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 선언 말씀을 볼 때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예수는 무명의 어른들이 고쳐 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불쌍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언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마가복음 10:15에서 그런 아이들을 거부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셨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ὡς παιδίων을 주격으로 해석함으로써 본문의 메시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왔지만 위에서 주장한 대로 ὡς παιδίων을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와 제자들의 대립된 행위 가운데 강조되는 환대와 받아들임이라는 본문의 메시지에 더 잘 어울린다.

두 개의 어린아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선언과 상징적인 행위는 세상의 낮고, 천한 존재인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들에 대한 환대와 받아들임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강조하신 것은 스스로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리고 이미 작고 낮은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에 대한 환대와 받아들임,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주제어>(Keywords)

마가복음 9:33-37, 마가복음 10:13-16, 어린아이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환대와 받아들임.

Mark 9:33-37, Mark 10:13-16, children's stories, Kingdom of God, welcoming and hospitality.

(투고 일자: 2023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3년 2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4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France, R. T., 『마가복음』, 이종만, 이요한, 정모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Marcus, J., 『마가복음 II』, 장성민 역, 서울: CLC, 2016.
- Weber, H.-R., 『예수님과 어린이』, 양금희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 Boring, M. E., *Mark: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Bosenius, B., *Der Literarische Raum des Markusevangeliums*, WMA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4.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 Cranfield, C. E. B.,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Derrett, J. D. M., “Why Jesus Blessed the Children (Mk 10:13-16 Par.)”, *NovT* 25.1 (1983), 1-18.
- Dschulnigg, P., *Das Markusevangelium*, ThKNT, Stuttgart: Kohlhammer, 2007.
- Ebner, M., “Kinderevangelium oder markinische Sozialkritik? Mk 10,13-16 im Kontext”, M. Ebner, Hg., *Gottes Kinder*, JBT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2, 315-336.
- Gnilka, J., *Das Evangelium nach Markus II*, EK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5.
- Gundry, J. M., “Children in the Gospel of Mark, with Special Attention to Jesus’ Blessing of the Children (Mark 10:13-16) and the Purpose of Mark”, M. J. Bunge, eds., *The Child in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2008.
- Heckel, U., “Die Kindersegnung Jesu und das Segnen von Kindern: Neutestamentliche und Praktisch-theologische Überlegungen zu Mk 10,13-16 Par”, *ThB* 32.6 (2001), 327-345.
- Kessler, 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Eine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8.
- Klein, G., “Jesus und die Kinder. Bibelarbeit über Markus 10,13-16”, *Ärgernisse, Konfrontation mit dem Neuen Testament*, München: Kaier, 1970, 58-81.
- Lane, W.,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9.
- Lührmann, D., *Das Markusevangelium*, HNT, Tübingen: Mohrsiebeck, 1987.
- Marquardt, J., *Das Privatleben der Römer I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5.
- Müller, P., *In der Mitte der Gemeinde: Kinder im Neu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2.

Santos, N. F., *Family Relations in the Gospel of Mark*, New York: Peter Lang, 2021.

Schmithals, W., *Das Evangelium nach Markus*, Gütersloh: Mohn, 1979.

Schreiber, J., “Die Christologie des Markusevangeliums: Beobachtungen zur Theologie und Komposition des zweiten Evangeliums”, *ZThK* 58.2 (1961), 154-183.

Spitaler, P., “Biblical Concern for the Marginalized: Mark’s Stories about Welcoming the Little Ones (Mk 9,33-11,11)”, *EThL* 87.1 (2011), 89-126.

Spitaler, P., “Welcoming a Child as a Metaphor for Welcoming God’s Kingdom: A Close Reading of Mark 10.13-16”, *JSNT* 31.4 (2009), 423-446.

Stegemann, W., “Lasset die Kinder zu mir kommen”, W. Stegemann, W. Schottroff, hrsg., *Traditionen der Befreiung. Sozialgeschichtliche Bibelauslegungen, Band 1. Methodische Zugänge*, München: Kaiser, 1980, 114-144.

Timpte, K. J. K., *The Transformational Role of Discipleship in Mark 10:13-16: Passage Towards Childhood*, LNTS, London: International Clark, 2022.

<Abstract>

**A Study on the Main Theme about the Analogy of a Child
in the Gospel of Mark:
Focusing o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παιδίον
and the Sentence Structure of Mark 10:15**

Seo-Jun Kim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interprets the two analogies of a child in Mark 9:33-37 and 10:13-16 in association with the events related to the disciples that occurred on the road in the second paragraph of the Gospel of Mark, and suggests that they contain the core lessons of the discipleship of Jesus. The key teachings are, as is expressed well in Jesus' words and symbolic action in the first analogy of a child, that disciples are to serve not as the first but as the last, and that they are to welcome and receive small and insignificant beings like a little child. The second analogy of a chil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first analogy, also emphasizes a new shift in how children are to be perceived, and how they should be welcomed and accepted. Existing studies have understood that these analogies are intended to correct adults' negative perceptions of children in the ancient world. However, the current study argues that such understanding not only is inconsistent with the context of the passage, but also stems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key word, παιδίον and the sentence structure of Mark 10:15. Considering its use throughout the Bible and other ancient literature, the word παιδίον in the analogy of a child is likely to refer to a child who lived as a servant rather than an ordinary child. Jesus put before his disciples the little child who was living as the last in the world, and spoke of his discipleship of serving as the servant of all people (Mark 9:35). He also demanded a new shift in the perception of the little child by identifying that child with himself (Mark 9:37). Likewise, the second child analogy reveals the meaning of Jesus' teachings and symbolic actions more clearly when the children in the text are assumed to be in lowly and miserable situations. The problem with the disciples was not that they lacked a childlike innocent and dependable mind, but that they rejected and did not accept children, whose standings were the last in the world. Jesus' words

about the kingdom of God (Mark 10:14-15) are not intended to urge his disciples to become like children, but to emphasize that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the children they did not accept, and that no one can enter it without receiving these little ones.